

완도, 이순신·진린 장군 역사고증 '재조명'

학술용역 최종보고회·정유재란 당시 기록 바탕 내달 한중 세미나 개최...충무사 인근 복원 추진

완도군은 정유재란 기록을 재고증해 이충무공·진린 장군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8일 완도군에 따르면 '완도 묘당도 이충무공 기념공원 조성'과 '이순신·진린 장군 선양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이달 초묘당도 관왕묘 및 진린 장군 재평가 학술용역 최종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보고회에서 한서대학교 장경희 교수팀은 용역의 중요한 결과물 중 하나로 왜곡된 명나라 장수 진린에 대한 재평가를 꼽았다.

각종 기록을 통한 연구결과 정유재란 시 이순신 장군과 고금도에 연합전선을 펼쳤던 명나라 장수 진린은 각종 소설과 매체에 표현된 것처럼 탐욕스럽고 비겁하다는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각별했다는 것이다.

선조실록에는 선조가 진린이 참전을 준비할 때와 귀국길 두 차례에 걸쳐 선물을 보냈으나, 진린은 뜻자리 등 소박한 선물만 받고 나머지는 정중히

서신과 함께 돌려보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난중일기에도 노랑해전 열흘 전, 왜적이 탈출을 도모한다는 첩보를 듣고 퇴로자단을 위해 이순신에게 진격을 제안했다고 나와 있으며, 전란 후 왜구 근거지인 대마도를 점령하자고 하는 등 용맹한 장군으로 평가된다는 것이다.

이순신 장군이 노랑해전에서 전사하자 진린은 직접 염을 하면서 애통해했고, 귀국길에 오르면서 선조에게 이순신의 위대함을 칭송했다고 한다.

완도 묘당도 관왕묘 건립과 관련해서는 1598년 정유재란 발발시 조선에 파병된 명나라 장수 진린이 조명연합수군의 전승을 기원하며 군신인 관왕과 해신인 마조, 삼관대제를 함께 배향하기 위해 건립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나라 관우사당 중 유일하게 수군이 건립하고 관왕과 함께 마조신을 배지한 것은 역사 문화적 가치에 있어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완도군은 이 같은 용역결과를 바탕



완도군이 이순신 장군과 명나라 진린 장군에 대한 선양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사진은 완도 고금 묘당도 충무사 전경.

으로 정전과 동서무, 동서제, 내종의 삼문과 내부 복장물을 포함한 관왕묘를 역사적 고증을 통해 충무사 인근에 복원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0일, '이순신과 진린 420년 만의 재회'를 주제로 개최되

는 고금도 통제영과 조명수군 활동 재조명 한중 국제학술 세미나에 중국 진린 장군 후손들과 광동성 진린문화 연구회원 등 30여 명을 초청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10일, '이순신과 진린 420년 만의 재회'를 주제로 개최되

신장군과 진린 장군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알 수 있는 뜻 깊은 자리였다"며 "두 장군의 선양사업 추진을 통해 경직된 한중 관계를 개선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완도=최규옥 기자

내고장 일꾼



김종식목포시장은 9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열리는 목포시 관광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보고회에 참석한다.



황인성영암부군수는 9일 오전 8시 30분 부군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목요타임을 갖고 현안을 논의한다.



이충봉진도부군수는 9일 오전 8시 30분 부군수실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회의 갖고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한다.

영암도기박물관, 수강생 모집 내달부터 매주 수요일 운영

영암도기박물관은 10일부터 30일까지 기초도예강좌 생활도예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수강생을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생활도예교실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2-5시에 운영한다. 전문가 지도를 통해 초보자도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기초강좌로 구성한다.

다양한 성형과 장식기법을 통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릇부터 화병이나 단지 등 작품까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다.

모집대상은 도기빚기를 통한 취미활동에 관심 있는 영암군 거주 성인으로 선착순 15명을 모집한다.

영암도기박물관 관계자는 "도기 기초성형을 습득하고 지속적인 체험활동을 희망하는 수강생을 대상으로 도예동아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지역민의 활발한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완도 '다시마 알긴산' 음료 출시

젤리 형태 '알긴그레이트' 유자·석류맛 선택

완도산다시마에서 추출한 알긴산을 젤리 형태로 담은 '알긴그레이트' 음료가 출시됐다.

'알긴그레이트'는 유자와 석류 농축액이 들어간 두 가지 맛으로 다시마 추출액과 알긴산 젤리가 5%씩 함유된 것이 특징이다.

정정바다에서 자란 완도산 다시마를 활용한 이 음료는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완도군이 지원하고 (재)전남생물산업진흥원 해양바이오연구센터가 6개월간의 연구개발 끝에 소비자 입맛에 맞춰 선보이게 됐다.

음료구입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에



완도산 다시마에서 추출한 알긴산 젤리가 들어있는 음료 '알긴그레이트' 이 출시됐다.

서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한 '완도바다향기'에서 할 수 있다. 판매 가격은 1병(340ml) 당 1,500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해양바이오연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완도=최규옥 기자

"해남 개별 주택가격 열람하세요"

올 6월 1일 기준...군청방문·전화로 가능

해남군은 '2018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열람대상은 올 1월부터 5월말까지 주거용 건물인 신·중축 또는 용도 변경되거나 부속 토지가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택 321호이다.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해남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할 수 있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해남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개별주택가격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의견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

해 인근주택과의 균형성, 비교 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한국감정원의 재검증과 해남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8일 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각종 조세부과와 보험료 산정의 기초자료로 쓰이는 등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영암 '풍류 연꽃축제' 11일 모정행복마을서

영암 '풍류 연꽃축제'가 군서면 모정행복마을에서 오는 11일 열린다.

올해로 5회째인 풍류 연꽃축제는 모정행복마을추진위원회(위원장 김창오)에서 주관해 월출산 너머로 보름달이 뜨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다는 원풍정과 흥련지 일원에서 펼쳐진다.

가야금 소조 분향에 걸맞은 인간문

화제 양승희와 제자들의 가야금 향연과 원풍정 풍류 음악회를 비롯해 다양한 행사가 열린다.

군 관계자는 7일 "아름다운 달빛 아래 흥련지에 가득 핀 연꽃과 아름다운 가야금 선율을 느끼며 한여름 무더위를 잠시 잊어버리는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암=최복섭 기자

목포,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 지정

장수옥설령탕 선정... "저염 식습관 정착"

목포시가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을 지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에 앞서 시는 나트륨 과다 섭취로 인한 성인병 예방과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 나트륨 줄이기 시범 음식점을 2개소 운영하고, 육암동에 위치한 '장수옥설령탕'을 실천 음식점으로 결정했다.

나트륨 줄이기 실천 음식점은 1인분량 나트륨 함량이 1,300mg 미만인 음식을 총 판매 메뉴에서 20% 이상 조리하는 음식점이다.

월 1회 이상 국물 등의 염도를 측정하고 나트륨 저감화 모바일앱인 나코디를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은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량(2,000mg)의 2.4배인 3,890mg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020년까지 국민 1일 나트륨 섭취량을 3,500mg 수준으로 현재보다 10% 이상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음식 공급자인 외식업계의 자발적인 나트륨 저감화 참여를 통해 저염 식습관 정착을 위한 이번 사업을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목포=박승경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목 포 010-3272-2765
- 011-632-0323
- 010-3635-6777
- 신 안 010-4627-1472
- 영 암 010-4624-8409
- 진 도 010-3624-4777
- 완 도 010-5619-7020
- 해 남 010-8181-2627
- 강 진 010-6646-1241

클릭! 고향 소식



해남 폭염 피해농가 현장 점검

해남군은 최근 폭염 피해 농가를 방문, 주민들을 위로하고 피해저감 대책을 논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동근수실 현장특목'의 일환으로 펼쳐진 이번 농가 방문은 황산면 연호마을 한우축사와 송호마을 육계농장, 문내면 석교마을 육계농장을 찾아 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살폈다.

군 관계자는 "폭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군 차원의 지원을 하는 등 헌신의 힘을 다 하겠다"고 당부했다. /해남=박병태 기자



완도 연안 양식장 차광막 설치

완도군은 연안 양식장 사전 예찰과 어업 현장 지도 등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최근 완도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됨에 따라 휴대용 수온 및 용존산소 측정기와 차광막, 액화산소, 은박발포지 등을 긴급 지원했다.

특히 전복의 경우 수온 25℃ 이상 반드시 급식을 시키고, 육상 양식장에서는 액화산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등 고수온 피해 예방에 적극 나서고 있다. /완도=최규옥 기자



진도 여름방학교실 '활발'

진도 드림스타트가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여름방학 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8일 군에 따르면 방학기간 동안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보건·복지·보호·교육 서비스 등 8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운영 프로그램은 체험 중심의 가족과 함께하는 역사탐방·문화체험 등이다. 도 공예·미술·경제 등 전문 강사와 기관 연계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진도=박병호 기자



무안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무안군은 최근 폭염 피해 예방 등을 위해 '8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번 '안전점검의 날' 행사는 무안군청 주관으로 삼함읍 지산5리 마을회관(노재동회관)에서 무안경찰서, 무안교육지원청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군은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긴급 폭염대책본부를 가동하고 그늘막 설치, 도로 물 뿌리기 등 피해 예방 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무안=박주현 기자